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1.22.(월) / 총 1매(본문 1)
담당부서	도로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이용욱, 사무관 서지웅 ·☎ (044) 201-3887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‘수소충전소 설치 부처 이견’ 보도 관련

- 우리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 관련 협회·학회·업계 등 유관기관 및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,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원활한 보급·확대 지원을 위하여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 - 수소차 충전시설은 공기업(도로공사)을 통한 선도적 투자 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며, 이를 위하여 우선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금년 중 8개소* 구축 후 단계적으로 확충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* '18년도 경부선 2, 호남선 2, 영동선 2, 당진영덕선 2개소 등 8개소 구축
 ** 수소충전소는 '18.1월 현재 전국에 14개소이며, 보급된 수소차는 190대임
- 참고로 일본도 충전인프라 구축에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필요*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, 수소차 제작사(도요타, 혼다 등), 가스사(이와타니, 도쿄가스) 등 11개 회사가 공동 참여하는 특수목적 법인(SPC) 설립을 추진하는 등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
* 현재 일본의 수소충전소당 운영비는 4,000만엔, 구축비는 4~5억엔 수준

< 관련 보도내용 (매일경제, '18.1.22.) >

- ◆ 「중국 수소차 굴기...‘최초 양산’ 한국은 설땅 잃어」
 - 중국은 2030년 100만대 비전 제시...정부 지원금 20만위안 유지
 -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4만대 목표...한국은 충전소 설치에 부처간 이견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도로정책과 서지웅 사무관(☎ 044-201-38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